논문

납골당 계획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A Case Study on the Planning of Charnel House

손계중* / Son, Kyea-Jung
김영훈** / Kim, Young-Hun

Abstract

The funeral and grave system in Korea has issued that our country will become a grave. This is a result of being in favor of the funeral and grave process of burial based on long time traditions and customs.

The government is allowing construction and use of charnels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improve this system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grave system; However, those results are very few and slight because the image of existing charnels have been regarded as abomination utilities and it has been projected not to be closed to the public easily.

In this study, we first looked at these problems using sample research and analysis. Second, we made comparisons and analysis to suggest solutions in the projecting method and feature of those spaces by carrying out a sample reasearch project. This project was based on 3 of the biggest charnels built recently, which are out of the 54 charnels in Korea.

After assaying the image according to the interior designing elements, and then proposing various several alternatives, we would like to tell how to build the future-oriented and opened charnels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when projecting charnel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alternative solution that diminishes abomonation and closeness in the interior of the charnel through the designing consideration and incerases the usage of this building by inducing traditional limitations and maintaining vertical dignity and piety by making the central axis adapting to the nature.

키워드 : 납골당, 장묘, 묘지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과 풍수지리설에 따른 전통적인 매장풍습의 선호로 인하여 화장보다는 매장위주의 장묘가 이루어져 죽은 자(死者)의 점유면적이 산자(生者)의 거주면적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실정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의 묘지 면적은 9백89㎢(1천9백80만기)로 이는 국토면적의 1%, 전체 공장부지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 20여만 기의 분묘로 계속 잠식되고 있어 머지않아 온 국토의 묘지화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1]. 실제로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묘지면적 증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1%가 우려를 표시했고 시한부 분묘제 도입과 묘지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각각63%, 46%가 찬성하여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2].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정장묘법의 시행에 맞추어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후납골〕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는데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에서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납골당을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납골당의 이미지 자체가 험오스럽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전혀 친근감을 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납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있도록 기존의 납골당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인 납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 사설 납골당은 54개로 약 267,000

* 정회원,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강사
** 정회원, 한려산업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1)보건복지부, 공설 및 사설법인 묘지현황, 1995 pp.216-217
2)한국장묘연구회, 우리나라 장묘정책의 발전방향, 1995, p25

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묘지면적의 축소와 화장, 납골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1개소는 유골을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는 창고식이며 시설이 낡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그나마 최근에 지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납골당은 불과 몇 군데밖에 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납골당 3군데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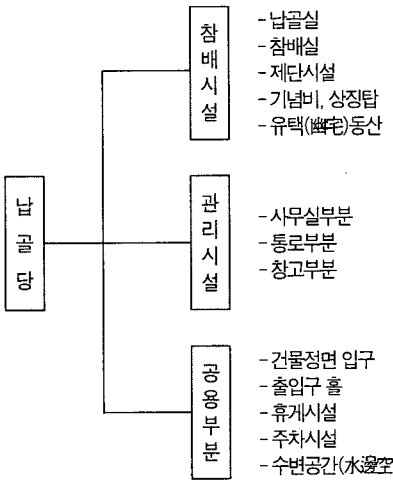
첫째 납골당의 공간의 구성 및 특징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의 건축적인 계획 및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납골당 내부의 실내디자인적인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실내공간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디자인적인 배려를 통하여 변화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납골당(納骨堂)의 공간구성 요소

납골당 시설은 대체적으로 시설지구내에 위치해 있어 화장장, 집단묘지 등과 함께 그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진입과 서비스공간으로 공용부분이 있으며 참배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고인의 신위를 모시고 기리는 참배시설, 그리고 관리시설로 나뉘며 이를 〈표 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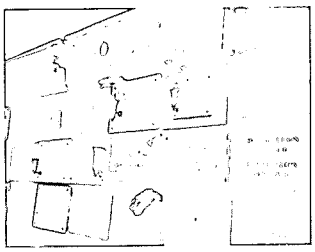
〈표 1〉 납골당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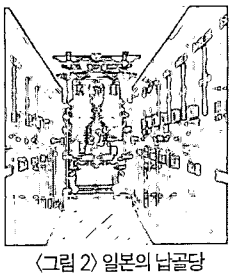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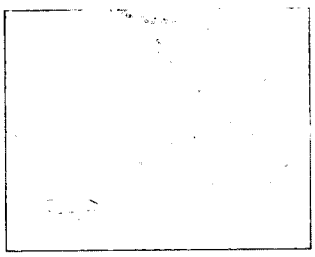
1) 납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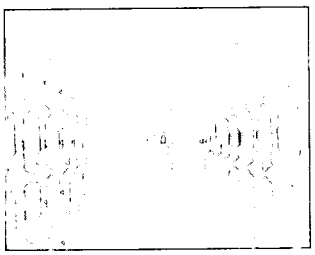
화장후의 유골이 안치되는 곳으로 현행법상 연고자가 있는 자의 경우 15년 사용이 가능하고 무연고인 자나 행려인 경우 10년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실에는 납골함이 가로세로의 여러 줄로 배열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납골당 문화가 오래되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며 특히 납골공원을 조성하여 벽면식으로 안치한 공원식과 경관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5].

3)보건복지부, 화장장 및 납골당 현황, 1995, p.218
4)東京都 新靈園等 構想委員會 報告書 pp.200-201


〈그림 1〉 프랑스벽면식 납골당


〈그림 2〉 일본의 납골당


〈그림 3〉 경관식 납골묘


〈그림 4〉 국내의 납골당

2) 참배실

방문객이 별도의 제단시설이 되어있는 곳에서 제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자의 집중에 대비하여 건물내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유택(幽宅)동산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뜻[6]으로 납골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이곳에 유골분이 뿌려지게 되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유택동산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이 허술하다.

〈그림 5〉 유택동산

4) 참배방법

납골당의 참배방법은 그 참배 방식에 따라 직접참배와 간접참배로 나눌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구분 지으면 다음과 〈표 2〉와 같고[7] 사

〈표 2〉 참배방식에 따른 구분

구 분	직접참배	간접참배
참배방법	납골室 신위에 참배	홀에 설치된 제단이나 상징적 시설에 참배
정신적인 만족도	평면묘지에 참배하는것과 동일	직접 approach 할 수 없는 불만감
상징적인 시설	불필요	시설내외에 참배용 기념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납골실의 구조	납골부분, 제단	납골부분
홀의 구성	입구홀, 계단, 승강기	입구홀, 참배용제단, 기념비
설 비	공조, 환기, 배연, 위생설비	공조, 환기, 배연

5)홍석기, 프랑스 묘지제도 및 그 문제점, 파리 소르본 대학교, p.66
6)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9, p.2812
7)東京都 新靈園等 構想委員會 報告書, 1990,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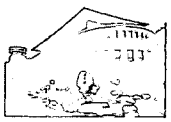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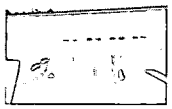
례조사를 통해서 본 국내의 참배 〈그림 5〉 유택동산방식은 간접참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사례조사 및 공간의 구성분석

3-1. 국내의 사례조사

납골당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묘지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되어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그 기능성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이용 또한 극히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본 사례조사에서 선정한 납골당은 최근에 신축한 것으로 건축적인 계획을 통한 기능의 순수성을 높이고 계획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를 꾀하기 하기 위해 화장장 이나 공원식묘지를 동시에 설치하여 앞으로의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조사 분석은 〈표3〉과 같다.

〈표 3〉 사례조사 분석표

	익산 영모묘원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서울시립 장묘사업소
건축개요	-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산 109 - 준공연도: 1997년 - 연면적: 약 106,000평 - 규모: 12,000위 안치 가능	- 위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 준공연도: 1997년 1월 - 연면적: 약 5900평 - 규모: 약 20,000위 안치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 178-1 - 준공연도: 1994년 12월 - 연면적: 약 900평 - 규모: 약 6000위 안치 가능
배치계획분석	- 동서로 진입측이 설정 - 전면에 공원식 묘지 - 배산임수형 배치	- 북향배치로 계단을 통해 진입 - 전면에 화장장 및 장례시설	- 남향으로 계단에 고저차를 두어 진입 - 독립적인 공간유지
동선계획분석	- 입구에 주차장설치로 정숙한 환경유지 - 평면내는 중앙북도형동선 - 관리동의 설치로 동선 분리	- 주차장의 부족으로 장례식장과 혼선 - 평면은 중앙홀형 배치 - 이용자와 관리자 동선동일	- 납골당전면에 주차장배치로 혼잡 - 중앙홀형 배치 - 관리동의 분리
평면계획분석	- 평면의 기능적 분할,좌측편에 납골실,우측에 제례공간	- 중앙홀을 중심으로 납골실을 배 치하였으나 홀이 좁아 심리적 압박감	- 중정을 두어 내부개방형 - 옥외에 제단을 설치
입면계획분석	- 원불교의 상징적요소 도입 - 수평선을 강조하여 안정된 배치 	- 화강석의 외부마감으로 중후감을 표현 - 건물고에 비례하여 전면부분이 너무좁아 불안함 	- 중정과 옥상을 상징물로 연결 - 곡선형의 건물로 부드러움 유지 - 입구에 스테인레스캐노피의 사용으로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 외벽마감은 화강석 사용
단면계획분석	- 중앙북도에 열주형기둥사용으로 엄숙함유지 - 채광을 위한 고창의 설치 - 지하층의 경우 걸로의 발생으로 항온,항습설비 필요	- 중앙홀의 VOID를 통한 자연채광 - 내부환기는 불량	- 중정을 외부로 오픈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 - 중정 후미부에 위치한 제례제단은 수직선의 형태로 상부로 길게 뻗어시각적초점(Focus Point) 형성

익산의 영모묘원(永慕墓園)은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사례조사 대상 중 가장 그 계획이 잘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납골당 건물과 전면의 넓은 공원식 묘지 사이에 인위적으로 연못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은 풍수지리설에서 나타나는 배산임수(背山任水)형태의 배치로 전체적인 배치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형태는 다른곳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 하므로써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의 영생관리사업소의 경우는 기존의 화장장 시설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여 초기에서 부터 증축에 대한 개념이 없이 계획되어져 배치와 외부동선 등이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납골실 역시 적은 면적에 약 20,000 위의 납골함을 설치하여 통로 등이 극히 비좁게 나타나고 채광과 환기도 매우 불량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폐쇄적이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중앙홀에는 VOID를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유도하였으나 홀의 면적이 너무 적어 상승적인 개방감을 받기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시립장묘사업소는 평면에 있어서 중정(中庭)을 도입하여 채광과 환기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내부의 공간이 하늘의 공간과 이어지며 상부에는 스테인레스의 상징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초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외벽에는 화강석을 질감을 달리하여 입면을 디자인 하였고 캐노피 부분을 스테인레스 조형물로 처리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바닥 마감은 검정색 판석을 사용하여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고 진입부분과 입구부분에는 계단으로 고저차를 두어 수직적인 위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3-2. 공간의 분석 및 계획방향

1)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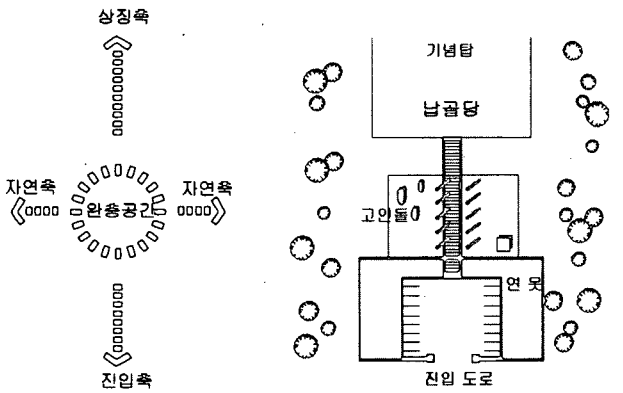
한국건축의 특징은 공간의 위계성(位階性)을 가지고 있어 구릉이 기복한 곳에 마당과 마당이 서로 고저 차로 단(壇)을 형성하며[8] 묘지의 방위는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어 죽은 자의 묘지입지가 주거환경의 방위와 일치하고 있으나[9] 사례조사의 납골당은 각각 그 배치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각 진입부와 건물간에 단차이를 두고 배치되어 있어 이는 각 공간에 수직적인 위계성을 주어 존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익산의 영모묘원의 경우 납골당은 방위상 북측에 배치되어 남향을 하고 있으며 진입은 동에서 서로 이루지는데 별도의 인위적인 계단을 형성하지 않고 구릉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남의 영생관리사업소는 납골당이 산뒷편에 위치하고 방향 또한 북향으로서 항상 전면에 그림자가 형성되어 진입부분이 어둡게 보이고 진입축 또한 화장장에서 바로 납골당으로 이어져 완충공간이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단을 통한 진입이 수직적인 고저차로 인하여 건물로부터 위압감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납골당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립장묘사업소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건물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중간의 완충공간이 없이 바로 연결되고 방위상 배치는 남향을 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의 층고가 낮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휴게시설이나 조경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딱딱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계획들을 조금 더 완성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건축의 기법을 도입하여 전정(前庭)과 중정(中庭), 후정(後庭)으로 각 공간을 계획하여 나타내보면 진입부분에는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경과 수변공간(水邊空間)을 조성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물-인간-하늘로 이어지는 소우주적 위계를 나타내게 한다.[10] 그리고 진입부분으로부터 납골당 건물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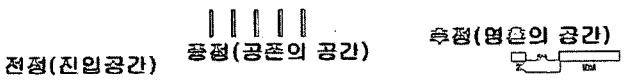
8)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87, p.198
9)김태호,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청주대, 1990, p.56

르기까지에는 완충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열주의 배치나 고인돌을 설치하여 이를 후정부분의 상징축과 연결시켜 수직적인 일직선을 유지한다〈그림6〉.

후정부분의 상징적인 공간에는 유택동산과 기념탑 등을 두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공간을 대칭 및 균형을 통한 통일감의 추구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자연의 고저 차의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여 배산임수형태의 남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림7 참조〉



〈그림 6〉 배치의 개념도



〈그림 7〉 진입과정별 공간의 구성

2) 동선계획

익산의 영모묘원의 경우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납골당내에서도 관리자와 방문객들의 동선이 구분되어 있으나 나머지 두곳은 면적의 협소함과 중앙홀형의 배치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동선의 혼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부근에 휴게공간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의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고 외부에도 제례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의 집중에 대처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대규모일 경우 각 건물마다 연계성을 확보하고 순환형으로 납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중앙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관리자와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계획한다.

3) 평면계획

내부평면에 있어서는 그 공간의 기능적인 역할과 동선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익산의 영모묘원은 납골실 공간을 분리하고 제례시설과 관리시설들을 함께 두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나머지 시설들은 관리와 납골실, 제례시설들이 혼합되어 동선에 혼선을 주고 기능적으로 분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평면의 폐쇄성에서 오는 단절감과 혐오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면을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거나 오른쪽과 왼쪽으로 별도로 배치하고 내부에 중정을 두거나 한쪽 면을 개방시켜 직접 외부와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골실의 배치는 익산처럼 그 내용에 따라 무연고자, 유연고자로 나누고 1인용과 부부용으로 구분하여 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골실은 모듈화된 배치로 공간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직접 참배할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내부에 중정이 있을 경우 오픈된 VOID를 통한 적절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층에는 별도의 제례단을 두어 간접참배가 가능케 하고 이용자의 집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하에 납골실이 설치될 경우에는 드라이에리어로 방습, 방수, 채광, 환기 등을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도하고 지하층과 1층은 진입로에 경사로를 두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입면계획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익산의 영모묘원의 경우 붉은 벽돌조이나 나머지는 화강암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석재의 사용은 건물의 중후함을 주고 영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익산의 영모묘원과 시립장묘사업소의 경우에는 옥상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상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영혼과 하늘이 맞닿는 의미라 생각된다.

성남 영생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지붕의 처리를 한식구조로 하였으나 비례감이 없어 균형이 맞지 않고 산 중턱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시선에서 전혀 한식구조의 지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계획당시부터 철저하게 현장입지분석을 통하여 입면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입면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단순한 재질감의 반복보다는 면의 질감을 달리함으로써 변화있는 입면의 구성이 요구된다.

5)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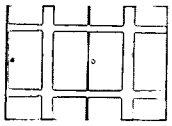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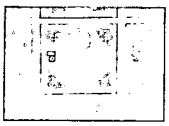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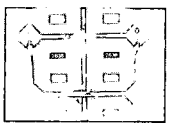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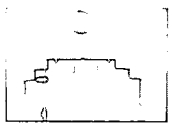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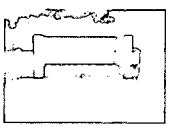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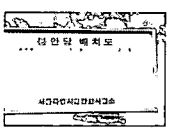
쾌적한 실내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1층 부분의 층고를 약간 높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천정의 VOID를 통한 자연채광을 저층부에 까지 인입하여 상승적인 개방감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서울시립장묘사업소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납골실 내부에 있어서는 납골함을 적절한 높이까지 배치하여 방문객의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디자인 요소 분석 및 개선방향

납골함에 유골분을 보관하고 납골 표지석에 그 신원사항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이러한 귀중한 조상의 유골을 모시는 납골함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실내공간의 분위기 및 조명, 안내 사인체계 등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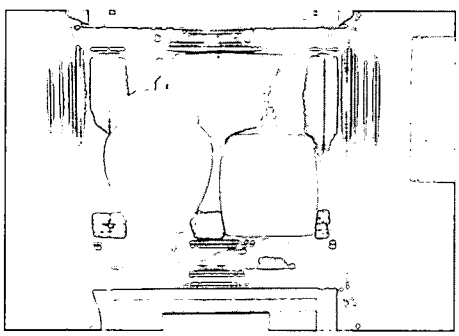
10)오영근, 물의 의미와 공간적 해석, 실내디자인 학회지 1996, 9호 pp.132-133

〈표 4〉 사례조사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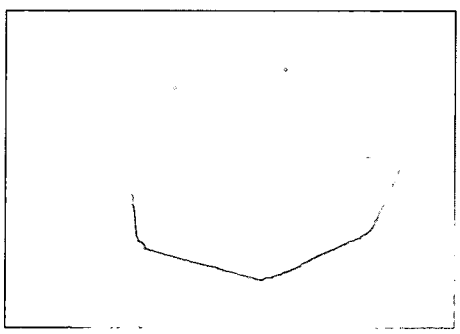
		익산 영모묘원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서울시립 장묘사업소
납골실 표지석	재질	- 철판위 에나멜페인트 도장 	- 철판위에 에나멜페인트 도장 	- 대리석 모서리부분에 금색 고정철물 - 플라스틱재질명패 
	색상	- 무궁화무늬 엠보싱철판위 백색페인트 도장	- 백색도장 및 도금사용	- 밝은 대리석 색상
	디자인	- 세부 디자인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조잡한 느낌	- 마감이 조잡하고 표지판 크기가 너무 작아 초라해 보임	- 재질은 고급이나 디자인적인 배려가 없음
실내 마감 및 색채	천정	- 흰색 텍스타일	- 흰색 텍스타일	- 석고보드위 밝은 녹색페인트 뿜칠
	벽	- 흰색 수성페인트	- 대리석	- 수성페인트
	바닥	- 화강석	- 대리석	- 검정색 판석
조명		- 형광등 천장매입 조명	- 형광등 천장매입 조명	- 기구내 형광등 매입 반직접조명으로 약간 어두움
제단		- 벌도의 제단실을 두고 있으며 검정오석으로 제단형성. - 바닥은 화강석 	- 벌도의 제단실에 3개의 제단이 있으며 인조석으로 상판제작. - 바닥은 화강석	- 옥외에 제단이 있으며 오석으로 제단석을 제작하였으나 시설이 형편없음. 
사인물		- 안내 사인물 없음	- 안내 사인물 없음	- 가로 2m,세로1m 스텐철판위 평면도가 전부임 

상기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실내의 공간구성 요소별 특성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1) 납골함



〈그림 8〉 기존 백색자기납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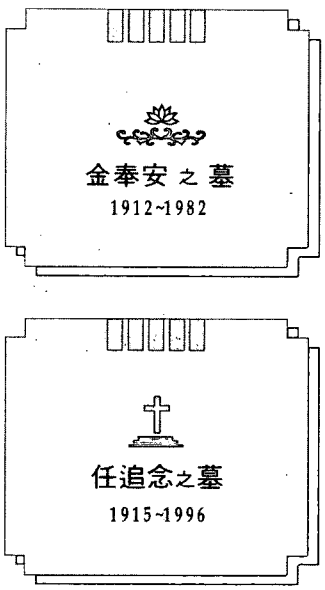
〈그림 9〉 오석을 이용한 납골함 디자인

고인의 시신을 화장 후 그 유골분을 담는것으로 가장 고급스럽고 귀중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기존에 것은 백색자기로 만들어져〈그림 8〉 재료가 가볍고 깨지기가 쉬운면이 있으므로 오석과 같은 단단하며 검은색의 석재를 사용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기 위해 전면에는 고인의 신위를 금박으로 입사하고 밑에는 받침을 두어 떠받드는 효과를 주면 〈그림 9〉과 같은 디자인이 된다.

2) 납골실 표지석

납골함의 표지석이 철판 위에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너무 가벼워 경박한 느낌을 주며 조상의 유골분을 모시는 귀중한 장소로 생각하기에는 질적인 면에서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고급스럽고 숭고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대리석, 인조석, 화강석 등의 석재로 마감하고 고인의 신원사항을 나타내는 표찰 역시 플라스틱보다는 석재에 음각으로 정교하게 파내고 여기에 고인의 종교에 따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심벌을 넣어 석재의 질감에서 오는 딱딱함을 최소화 시킨다〈그림 10〉.

또한 이러한 표지석이 여러 단과 열로 반복하여 배치됨으로 인하여 오는 전체적인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의 귀를 안으로 접어 직각으로 처리하거나 교차되는 부분에 전통적인 문양으로 조각하여 배치한다.



〈그림 10〉 납골실 표지석 디자인

3) 제단

제단에는 고인의 신위를 놓고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가장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계획되어져야 하고 재질 역시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례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제단이 옥외에 배치될 경우 오물 등이 묻거나 먼지 등이 쌓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실내에서도 제례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제단이 실내에 계획되어질 경우에는 별도의 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바닥은 대리석이나 화강석 등의 딱딱한 질감보다는 목재나 카

페트 등의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하므로 서 제례를 올릴 때 감촉을 좋게 한다.

4) 마감 및 색채

내부의 실내 마감은 천장부분은 흰색의 텍스타일을 사용하여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전혀 디자인적인 배려가 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한색계열의 색상으로 차분하게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감재료의 선택이 요구된다.

벽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멘트위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초라하고 형식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한색계열의 차분하고 안정된 색상이 요구되며 대리석 등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화강석이나 대리석 등을 사용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단조로운 배치로 인하여 식상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무늬나 패턴을 주어 액센트적인 효과로 공간의 평면에 인식성과 활력을 주는 것도 좋다.

5) 조명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납골실 내부의 조명은 모두 형광등을 천장에 직접 매입하여 사용하다 보니 모서리 부분 등이나 각 굴곡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조명이 없어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으며〈그림4〉 자연채광창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각 부분마다 일정한 조도를 얻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획당시부터 납골실의 모듈별 배치에 따라 납골실과 납골실 사이에 창이 배치되어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조명을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벽조명을 사용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정의 오픈된 VOID를 통한 자연채광은 일정한 조도를 확보하는 목적 외에 하늘과 영혼이 맞닿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안내사인체계

방문객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있더라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내 체계는 내방객에게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줌과 동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벌마크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안내 사인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가 클 경우 내방객은 쉽게 자기 조상의 납골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기억하여 찾을 수 있도록 색채조닝 계획을 하여 안내 사인물을 제작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우리 나라의 납골당 문화는 그 역사가 짧고 인식의 차별에 따라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격리되어 있으나 우리의 후손과 국토의 유한성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납골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지고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1. 전체적인 배치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자연의 축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전정, 중정, 후정의 성격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진입부에는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친근감을 유도하고 풍수지리적인 효과를 최대화 한다.
2. 묘지시설내 동선은 차량과 보행자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납골당 내에서는 인원의 집중에 대 비한 동선의 고려가 필요하다.
3. 납골당 평면은 기능적인 분할이 요구되며 납골 수장실의 모듈화된 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중정이 있을 경우 오픈된 VOID를 통한 채광과 환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상부로의 개방감을 도입할 수 있다.
4. 입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재질의 반복보다는 면의 질감을 달리하여 계획함으로서 변화있는 입면의 구성을 할 수 있고 공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기념물이 요구 된다.
5. 고인의 납골함은 오석(烏石)이나 대리석등의 고급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과 영구성을 나타내고 최대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납골함의 표지석 역시 고급스러운 재질이 요구되며 고인의 종교에 따른 적절한 디자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7. 제단실은 간접참배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엄숙한 분위기로 공간이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며 바닥은 편하게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마감재료가 요구된다.
8. 납골당 실내공간의 색채 및 마감은 단순한 페인팅보다는 대리석등의 고급마감으로 하고 바닥 에는 무늬나 패턴을 주어 평면에 활력을 주는 것도 좋다.
9. 전체조명은 최대한 자연채광을 도입하고 특히 구석진 부분의 조명에 각별히 신경써서 음침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직접조명보다는 간 접조명이나 반간접조명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10. 방문객이 쉽고 편하게 찾기 위해서는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는 안내사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므로 고인돌을 심벌마크화하여 사용하면 낯설지 않은 이미지와 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년보, 1996
2. 김정재, 건축설계대사전, 효성, 1991
3. 박시익, 풍수지리설의 현대건축학적 적용, 광장, 4월호, 1988
4.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9
5. 김부식,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1984
6. 김태호,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청주대, 1990
7. 김종대, 우리나라 묘지제도와 운영상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1984
8.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88
9. 주남철, 한국건축의장,일지사,1987
10. 윤도근외 공저, 건축계획, 문운당, 1988
11. 박 홍,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1990
12. 한국 장묘연구회, 한국장묘, 1995
13. 주식회사メモリアルジヤパン, Memorial Japan, 1996
14. 주식회사メモリアルジヤパン, A Stairway to Heaven, 1996
15. 東京都新靈園等構想委員會, 東京都新靈園等構想委員會報告書, 1990

〈접수:1997. 11. 3〉